



눈과 촛불

매년 2월, 새하얀 눈 속에서 촛불이 켜지는 몽환적인 이벤트인 '등불의 회랑'이 개최된다. 시내 6개 지역에서 개최되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지역 주민이 협력하면서 총 거리 약 60km, 약 10 만개의 촛불로 "아름다운 길"을 만들어냈다. 이벤트는 1일 한정이기 때문에 더 볼 가치가 있다.



레루히 축제

일본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지도한 레루히 소령을 기리는 축제.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한 개의 지팡이만 사용하는 스키의 실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.



간기의 문화

조에쓰 시는 눈이 많기에, 눈을 견뎌내기 위한 지혜와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. 적설 시에도 길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편에 있는 집들이 지붕을 늘린 방식을 쓰는데 이 처마를 "간기"라고 한다. 시대와 함께 건축 양식이 바뀌어 현재는 감소했지만, 다카다 지역에는 지금도 옛날 간기가 남아 있고 이 간기의 거리는 일본에서 가장 길다.